인니, 멕시코 ·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재개 예고

▢ 주요내용

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2일 브라질산, 멕시코산, 인도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.

물랏노 농업부 축산국장은 이날 "멕시코 등 과거 구제역 오염국으로 알려져 수입을 금했던 나라에도 다시 수입의 문을 열어 국내 쇠고기 유통 가격을 안정시킬 것"이라 밝혔다.

이는 '가축 방역에 관한 법률 2014년 제 41호'와 '특정국가 및 지역 가축 및 축산물 수입에 관한 정령 2016년 제 4호'에 따른 것이다.

한편 인도네시아축산협회(PPSKI)의 부디야나 회장은 "구제역 오염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에 반대한다. 정부는 국내 쇠고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쇠고기 물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, 이는 국내 육우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"이라 비판했다.

현재 인도네시아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호주, 미국, 뉴질랜드, 캐나다, 일본이다.

(출처 :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/04/29)

▢ 시사점

인도네시아 정부는 쇠고기 자급자족 정책 시행 이후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수입 대상국을 다변화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 2014년 개정된 농업부 장관령 제139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free FMD(구제역-Foot and Mouth Disease)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함. 위 기사와 같이 대상국이 점차 확대될 경우 수입되는 쇠고기의 종류 및 가격대가 다양화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는 이에 대해 대비하여야 할 것임